

책이음 이야기

도서관과 도서관을 이어가는 책이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참여 공공도서관이 2010년부터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사업의 도서관 이용증 명칭입니다. 2014년 10월까지 "통합도서회원증"이란 이름으로 사용하다 국민 공모를 통하여 책이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86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서관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은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정보 시스템도 달라서, 그 동안 이용자는 각각의 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책이음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국의 참여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서관을 책이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도 필요하고 운영 체계도 갖춰야 하므로 전국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책이음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이음 목표 / 비전

목표

책이음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참여 도서관 이용체계 구축

비전

책이음 카드 한 장으로 즐기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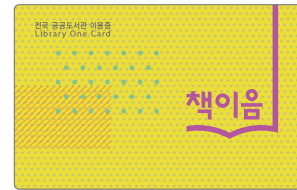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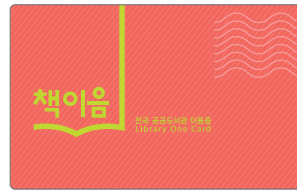
참여 지방자치단체

(14년 12월 기준)

시·도	지역대표도서관	전체 도서관 수	참여 도서관 수	참여연도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123	0	'15년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시립시민도서관	31	29	'10년
대구광역시	대구중앙도서관	28	28	'11년
인천광역시	인천미추홀	38	38	'10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9	19	'12년
경기도	파주교하도서관	194	86	'14년
전라북도	전북도청도서관	53	23	'12년
전라남도	전남도립도서관	60	57	'13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20	15	'12년

* 참여 도서관은 <http://LibraryOne.nl.go.kr>에서 확인 가능

책이음 디자인 샘플



* 책이음 로고를 활용, 자유롭게 디자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책이음

책이음

브랜드 로고 의미

명칭설명

책이음은 책과 이음의 합성어로서 개별 도서관을 하나로 잇는 '통합도서관서비스'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표현

'책'이 주는 도서관, 지혜의 창고, 이야기 등의 연상이미지와 '이음'이 갖는 소통, 연결, 하나 등의 이미지가 결합된 명칭으로 책과 책, 도서관과 도서관을 하나로 이어 전국의 참여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임을 표현한 브랜드

디자인설명



펼치다 + 잇다 + 책

펼쳐진 책을 굽은 라인의 형태로 단순하게 표현 책에서 이어진 라인의 연결을 통해 통합도서관서비스와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연결 이미지를 시각화

전용색상

Main Colors

Library One Card Blue
PANTONE 638 C

Library One Card Gray
PANTONE Cool Gray 7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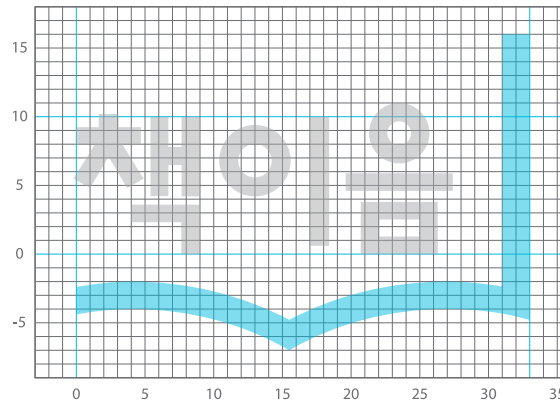
C 75 + Y 10
R 237 + G 25 + B 58

K 40
R 109 + G 110 + B 112

Supporting Color Palette



그리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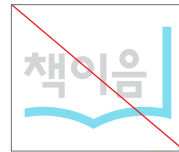


사용금지규정

시각적 혼동이 심한 색상을 사용한 경우



컬리에 투명도를 준 경우



브랜드로고의 요소를 라인형태로 사용한 경우



브랜드로고 요소의 위치를 변형한 경우



형태를 임의로 기울인 경우



형태를 임의로 변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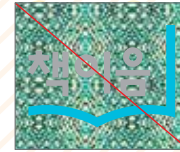
상태가 불량한 원고를 사용한 경우



어두운 배경색 위에 사용하여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



복잡한 배경 위에 사용한 경우



브랜드 로고 조합



책이음 브랜드 응용 항목 캐리어백 / 에코백

